

2023년 전국 지구, 단위 구역담당 연수회



일시 : 2023년 5월 27일(토) ~ 28일(일)

장소 : 산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주제 : 프란치스코의 성소와 구역담당의 역할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 이광재(티모테오) 조종국(마르코) 시복시성 기도 ■

자애로우신 주님

이 땅에 선조들의 피땀으로 신앙을 싹트게 하시고
한국 재속프란치스코회에 믿음으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착한 목자,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를 통해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는 재속프란치스코회로서 형제자매들을 열심히 지도하였으며,
전쟁의 위험 속에서 끝까지 양떼를 돌보다 총탄에 쓰러져 순교하였나이다.

또한 재속프란치스코회이며 가톨릭 청년운동의 선구자였던
조종국 마르코를 통해서도 찬미 받으소서.

그는 청년운동을 전개하고 재속프란치스코회를 재건하는데
혼신의 힘을 바치다 전쟁 중에 피랍되어 생명을 바쳤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들이 당신의 자애로 시복 시성의 영예를 얻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한국재속프란치스코회가 그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엘리사벳과 성 루도비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목 차 ▣

이광재 조종국 시복시성 기도문 / 1
일정표 / 4

《 강의 》

1. 재속프란치스칸의 소명 / 9 홍성군 바오로 ofs
- 2 ofs 성소와 구역과의 관계 / 15 이현주 카타리나 ofs
3.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부르심과 따름/ 21 최문기 마티아 ofm conv.

《 사례 발표 》

- ▷ 동서울지구 / 31
- ▷ 대구지구 / 35

《 자료 》

1. 구역담당(구역장) 길잡이 / 51

◎ 참고 서식 / 79

◎ 참석자 명단 / 83

■ 공 지 사 항 ■

1. 교육관 사용

- 1) 방을 드나들 때는 꼭 귀중한 소지품은 각자 지참하고 다닙니다.
* 공동으로 방을 사용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남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침구는 시트를 사용하여 주시고, 둘째날 아침에는 사용한 시트를 복도에 내놓습니다.
- 3) 연수가 끝나고 사용한 방의 정리는 각 방이 자체적으로 하고 퇴실합니다.
- 4) 숙소가 번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숙소는 이름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연수회 참가 시 유의사항

- 1) 참가자들은 강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참되고 폭넓은 형제애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배려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행위, 인격적인 언행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연수회 장소를 벗어나는 등 개인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항은 접수대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4) 조별 나눔 방은 교육관 게시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조는 조장과 서기를 선출하시고, 그룹토의 내용을 적은 전지는 진행자 또는 접수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조별 나눔 시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접수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컵은 되도록 개인 컵을 사용해주시고, 교육관 컵 사용 시 각자 씻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7) 취침 시 복도나 밖에서 소란스럽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발 소리, 말소리 등).

▣ 지구, 단위 형제회 구역담당 연수 일정표 ▣

장 소 : 산청 성심원

일 시 : 2023년 5월 27-28일

주 제 : 프란치스칸의 성소와 구역담당의 역할

진 행 : 부봉사자

(1일 성소의 날)

구 분	내 용	담 당	장소	비고
13:00~13:30	도착 접수	국가평의원	교육관	
13:30~14:00	-시작기도 / 지구별 인사 -오리엔테이션	국가봉사자 부 봉사자	성 당	
14:00~14:40	시작 미사	유영진 루가O.F.M 독서 : 대전지구	성 당	
14:40~15:00	휴 식	국가평의원	식 당	간 식
15:00~16:30	강 의(재속프란치스칸 소명)	홍성균 바오로 국가봉사자	성 당	
16:30~16:40	휴 식			차
16:40~18:10	강의(OFS성소와 구역과의 관계)	이현주 카타리나 ofs(전 국가봉사자)	성 당	
18:10~18:30	저녁기도	대구지구		
18:30~19:30	저녁식사 및 정리	서울(중,서,동)지구		설거지
19:30~20:00	산책			
20:00~21:00	구역 모임 사례 발표	동서울, 대구 등	성 당	
21:00~22:00	친교	광주지구	식 당	뒷정리
22:00~	끝 기도(방별로), 취침			

(2일 열매의 날)

구 분	내 용	담당	장소	비고
06:30~07:00	기상			
07:00~07:40	아침기도 및 사진촬영	인천지구	성당	
07:40~09:00	아침식사 및 산책	경남지구		
09:00~10:30	강 의(복음서에서 드러나는 부르심과 따름)	국가영보 최문기 마티아 ofm con.	성당	
10:30~11:00	휴식			
11:00~12:00	연수회 정리 및 낮기도	-국가봉사자 -부산지구	성당	
12:00~13:20	점심식사(방정리와 출발준비)	경기지구	식당	설거지
13:20~13:30	미사준비			
13:30~14:30	파견미사	-국가영보 최문기 마티아 ofm con. -전주지구	성당	부 봉사 자
14:30~	끝기도	국가봉사자	성당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강 의 모 음

<제 1 강의>

재속프란치스칸 소명

홍성균 바오로 O.F.S

국가형제회 봉사자

재속프란치스칸은 누구인가?

회칙 제1조: “제 1조: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룩하신 영적 가족 가운데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 받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 곧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회칙 제2조: “재속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고유한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가톨릭 형제회들의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이다. 이 형제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성령께 인도되어 각자 재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서약을 통하여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 생활을 추구한다.”

재속프란치스칸 소명과 삶

재속프란치스칸 소명은 회칙 1, 2조의 삶으로의 부르심

부르심의 주체는 성령

초기양성기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 서약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의 삶의 시작은 서약에서부터

맹세와 서약의 비교

마태 5, 34-36: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재속프란치스칸 서약문: “나(…)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하락하셨으니 세례 서원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재속 신분으로 살면서 일생동안 재속프란치스코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

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으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에 힘입어,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지침서 146쪽)

맹세와 서약의 차이

구분	맹 세	서약
주체	나	주님
동기	오만	순종
기원	악마	성령
열매	악	선(사랑의 완덕)

서약은 자기 봉헌이다

서약의 요건은 주님 부르심의 확인:

“양성기의 체험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아끼시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생활로 부르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서약 예절에서 청원자의 공적 서약 의사 표현)

서약은 부르심에 응답한 자신의 봉헌:

“서약은 세례와 견진 때 한 봉헌과 약속의 갱신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하느님께 봉헌함을 의미한다. 곧 서약자는 이 세상에서 봉헌의 삶을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에 대한 구원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재속프란치스코회 예절서 서언 14절, 가))

서약은 공적 약속이다

“서약은 성질상 공적인 교회의 행위이므로”(예절서 서언 13)

“교회는 사제와 형제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통해 재속프란치스코회 생활과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의 서약을 받아들인다. 교회는 공적 기도로 그들을 위해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을 구하고, 그들에게 강복을 내리며, 그들의 서약을 성체성사와 결합시킨다.”(예절서 서언 9)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교회 안의 한 공적 단체이다. 이는 단위, 지구, 국가 및 국제 차원의 여러 형제회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독자적으로 법인 자격을 얻는다.”(회헌 1조 5항)

서약은 영구적인 의무이다

서약은 온전한 자기 봉헌의 공적 약속이기에 서약 이전에 서약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전제되어야 하고, 서약 후에 약속을 충실히 지킬 의지와 각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서약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복음을 살려는 각오이다.”

“마) 서약은 전 생애를 통해 복음을 살려는 의지이다.”

(예절서 서언 1절)

따라서 재속프란치스칸의 공적 서약은 사적 약속이나 서약처럼 필요에 따라 발했다 물렸다 할 수 없다.

“서약은 그 본성상 영구적인 의무이다”(회칙 23조)

서약의 삶은 은총의 선물이다

각오, 의지, 의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들게 마련이다

서약을 앞둔 초기양성기에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할 관문이다

자기 노력에 의지하려 하면 누구나 좌절, 실패하고 말 것이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고,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과

사랑의 일치에의 열망이 모든 장애를 넘어 서약으로 이끈다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주님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사랑의 열망’자체가 그분이 베푸신 은총이다

서약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자신을 봉헌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하락하셨으니”라고 고백한다.

서약의 삶은 갈림 없는 사랑의 응답이다

봉헌의 삶은 선발된 어떤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 아니다

봉헌의 삶은 세례 받은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는 부르심이다

서약의 삶은 그 보편적 봉헌의 삶을 보다 심화시키는 삶이다

어떤 것에도 방해 받지 않고 오롯한 마음으로 사랑의 주님께 갈림없는 사랑의 응답을 드리고자 하는 삶이 서약의 삶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런 갈림없는 사랑의 응답을 드리는 사람들을 수도자로 부르고 그 가치를 높이 사며 존중했다

재속프란치스칸 봉헌의 삶은 세속에 살면서 그 갈림없는 사랑의 응답을 드리고자 하는 삶이다.

규정에 나타난 갈림 없는 사랑

「바티칸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6장(수도자),44:

“신자는 성세성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느님께 봉헌되었으나, 성세성사로 받은 은총의 보다 풍부한 결실을 얻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복음적 권유들을 서원함으로써 사랑의 열성과 완전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하느님 공경에 보다 깊이 봉헌되는 것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6조:

“형제자매는 세례성사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가 되었으며, 서약함으로써 교회와 더욱 친밀히 결합되었다.”

삶 전체를 통한 사랑의 응답

서약의 삶은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 봉헌한 삶이기에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닌 삶 전체가 사랑의 응답이 되는 삶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영성은 실천에 옮겨야 할 세부적 일정이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따르는 데에 중심을 두는 생활계획이다.”(회헌 9, 2)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사람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들이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그 안에서 삶과 사랑과 수난의 목적과 방법을 배우는 ‘교과서’이다.”(회헌 10)

프란치스코 공통의 은사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한 갈림없는 사랑의 응답은 프란치스코 공통의 은사이다

작은형제들의 회칙 1장: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녀 글라라 회칙 1장: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 생활양식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4조: “재속프란치스코의 회칙과 생활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라핌 사랑의 은사

“성령께서 교회 안에 이룩하신 영적 가족 가운데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 받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 곧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이들은 방법과 형식은 다양하지만, 활기에 찬 상호간의 친교 안에서 공동의 세라핌 사부의 은사(Charisma)를 교회의 생활과 사명 안에서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회칙, 제 1조)

세라핌 천사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랍(Serafim)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사야 6, 1-3)

세라핌 천사와 오상(五傷)

“내 주 예수 그리스도님, 구하오니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소서. 먼저 제가 살고 있는 동안 제 영혼과 육신에, 사랑하는 당신 예수께서 가장 괴로웠던 수난

시간에 견디어 내신 그 고통을, 그 다음에 그것을 기꺼이 견디어 내실 만큼 불타올랐던 넘치는 사랑을 제 마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느끼게 해주소서.’…이렇게 묵상 속에 불태우고 있던 바로 그날 아침, 하늘로부터 찬란하고 불타는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진 한 세라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천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상을 가졌는데, 그의 날개 중 두 개는 머리 위로 뻗었고, 둘은 날 수 있도록 펼쳐져 있고, 다른 둘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잔꽃송이 2부 3장)

은사의 간직

은사는 클수록 드러내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인데 그 인정욕구의 뿌리는 원죄의 교만에 닿아 있기에 조심하여 잘 간직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은사를 잃게 될 위험이 크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고’, 또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종은 복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업적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비밀을 ‘자기 마음 속에 간직하는’ 종은 복됩니다.”(영적권고 28)

감춰진 보물

은사는 아무리 커도 그것을 감추고 나면 세속적인 눈에 남는 것은 보잘것없는 비천함과 연약함뿐이다

세속적인 눈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이듯이 연약함과 비천함도 내적으로 감춰진 그 무엇이 없다면 그저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이다.

내적으로 감춰진 그 무엇이든 바로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다

이 기쁨이야말로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의 진정한 보물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전생애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고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의 삶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다

참되고 완전한 기쁨

“…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 받고 복되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레오 형제여!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레오 형제여, 자 이제 결론을 들어보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온갖 은총과 선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를 눌러 이기고,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달게 참아 받는 그것입니다.”(잔꽃송이 8장)

회개

이 참되고 완전한 기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죽음을 넘어 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까지 다른 어떤 것에

도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되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 받아,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제7조)

<제 2 강의>

OFS 성소와 구역과의 관계

이현주 카타리나 O.F.S

1. 왜 구역모임이 필요한가?

구역모임은 한국 국가형제회에만 있는 독특한 모임이다. 그러니까 회칙이나 회헌에서 구역모임을 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구역모임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면 없는 것은 아니다. 회칙 22조 “단위형제회는 교회 의식과 프란치스코의 성소를 진작시키고 회원의 사도적 생활에 활기를 주기 위한 특전적인 모임이 되어야 한다.”에서 찾을 수 있다. 회칙 24조는 평의회가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형제회의 정기적인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가지며, 다른 프란치스칸 그룹, 특히 청년 그룹과의 만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며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회헌에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형제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합을 통하여 회원에게 만남과 유대의 기회를 제공한다.”(회헌 53,1)

회칙과 회헌에 제시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만남”이다. 프란치스칸 삶에서 만남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것은 형제애와 직결되어 있고, 형제애는 친교를 나누어야 생긴다. 친교가 가상의 공간에서는 쉽지 않다. 물론 zoom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밴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제공동체가 친교를 이루려면 함께 숨쉬고 느끼고 나눌 수 있는 실제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도 이 연수회에서 만남으로써 전국의 구역담당들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형제애가 싹트게 된다. 형제애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대표적인 영성이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고, 또 수도회 이름에도 형제애를 염두에 둔 형제회를 사용하였다.

첼라노 전기는 형제들의 형제애를 이렇게 기록한다.

항심(恒心)의 토대 위에 사랑의 고귀한 조직체가 형성되었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살아 있는 돌들이 세워져서 성령의 거처가 되었다. 오, 얼마나 큰 사랑의 정열로

이 그리스도의 새 제자들이 타올랐던가! 얼마나 큰 사랑이 이 경건한 단체 안에서 피어올랐던가! 어디에 가든지 혹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면 사랑이 솟구쳐 올랐고, 다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애정의 씨앗인 사랑을 서로 뿌렸다.¹⁾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우아한 포용, 부드러운 애정, 거룩한 친구(親口), 즐거운 대화, 품위 있는 웃음, 즐거운 모습, 단순한 눈매, 순종의 정신, 온화한 말씨, 부드러운 대답, 목적의 단일성, 기꺼운 순종,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등등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볼 수가 있었다. [세동료 41; 익페루 24-25] 참으로 그들은 모든 지상적인 것을 가볍게 보고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온 사랑을 공동체에 쏟았고 형제들의 필요에 서로 응하기 위하여 각자가 헌신하려고 힘썼다. 그들은 큰 바람으로 서로 모여들었으며 기쁨 가운데 머물렀다. 동료들과 헤어짐을 서로 슬퍼했으니 그것은 쓰라린 이별, 참혹한 적조(積阻)²⁾였던 것이다.(1첼라노 38,39)

세동료 전기에는 형제애를 나누는 프란치스코의 초기형제들 모습을 잘 그려놓았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미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돌이 겨냥되는 것을 보고는 그 즉시 자기가 그 돌을 가로막았다. 차라리 그 형제보다는 자기가 돌을 맞가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 서로의 사랑이 이처럼 깊었기에 서로는 서로에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세동료 42)

어느 형제가 어저다 말을 실수해서 그 말이 다른 형제를 괴롭혔을 경우에는, 그는 이 일이 너무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자기의 잘못을 땅에 엎드려 겸손히 고백했고, 그 형제가 그 형제의 발을 자신의 입에 넣을 때까지 안절부절을 못했다. ... 그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원한과 악행이 사라지도록 머리를 짜냈고, 서로 간의 완벽한 사랑을 늘 유지 하도록 노력했다. 각각의 형제는 악행을 덕행으로 막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서로 도와 가며 살았다.(세동료 43)

수도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재속에서 프란치스칸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프란치스코의 초기 동료들처럼 살 수 있겠는가? 없다. 그러나 그 정신을 따를 수 있다. 이들이 행했던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같이 아파하고 응당 순응하는 정신은 우리 재속프란치스칸들도 살 수 있는 정신이다. 1회가 형제회를 이루고 공동체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형제회 생활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한다. 공동체 생활(형제회 생활)에서 우리는 친교와 형제애를 나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한다. 우리 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왜 이웃이 사촌인가? 자주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나누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다시 나누고 이해하고 ... 이런 과정들을 거쳐 핏줄인 먼 친척보다 낫다는 의미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보인다.

1) 상호 사랑의 영성은 수도회 영성에 그 뿌리를 둔다. 특히 12세기의 시토회의 개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참조: 『사막 교부들의 삶』 XX,8; 『The Life of Bernard』 14.

2) “acerba disiunctio(참혹한 적조)” 적조: 소식이 끊길 만큼 오랫동안 헤어짐.

영신 형제도 아닌 이웃도 친척과 같은 사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신의 형제들인데 이웃사촌보다 더 깊고 진한 친척 아닌가! 아니 사촌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하지 않는가! 영적 핏줄인 영신의 형제들이 이웃사촌보다 더 진한 형제로 살 수 있는 모임이 어디일까? 첫 번째는 월례회이다. 월례회에서 작고 소박하고 형제애가 짙어야 한다. 월례회에서 친교와 양성과 교회의식과 프란치스코 성소의 진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4시간의 월례회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형제의 모습을 지니기가 어렵다. 시작기도 하고 공지사향하고 반별교육하고, 미사나 전체강의 또는 나눔하고 나면 빨리 끝기도 하고 집에 가야 한다. 모두 바쁘고 모두 시간적 여유가 없다. 형제애를 나눌 수가 없으니 형제애를 나눌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생긴 것이 구역모임이다.

구역모임은 잦은 만남을 하라는 회칙과 회헌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월례회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①친교를 위해 한번 더 만나는 것이다.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을 만나니 어색했던 사람, 이해되지 않는 행동, 거부감가는 회원 등도 나눔을 통해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이는 무엇을 성장하게 하는가? ②우리의 성소를 진작시키는 일이며 동시에 자신의 영적인 삶을 성숙시킨다. 본당생활을 빗대어 얘기한다면, 본당활동은 모든 그리스도신자들의 의무와 같다. 그러나 소속감에서 제외되어 개인 독자노선을 걷는 신자들이 더 많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소공동체이다. 구체적으로 구역과 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원들 중에는 이렇게 최소한의 의무감으로 월례회를 나오는 이들이 있다. 형제회 수가 적은 곳은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 나오지 않거나 그래도 열심히 회원들이거나! 그러니까 회원 개인이 자신의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월례회가 시들해진다. 그러나 구역모임은 이 소속감에서 배제되는 회원이 거의 없다. 구역장의 활동 여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소속감을 가지면 자유의지가 발동하게 된다. 소속감은 열심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프란치스코의 초기 형제들처럼!

구역모임은 프란치스코 형제애의 산실이요 단위형제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작은 월례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아한 포용, 부드러운 애정, 거룩한 친구(親口), 즐거운 대화, 품위 있는 웃음, 즐거운 모습, 단순한 눈매, 순종의 정신, 온화한 말씨, 부드러운 대답, 목적의 단일성, 기꺼운 순종,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드러난다. 위로와 격려로 삶의 힘을 받고 절망의 사다리를 건너 희망의 나라로 건너온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슬픔과 고뇌를 털어놓는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 성숙하고 함께 나아간다. 구역모임은 형제애의 산실이며 최고의 양성(교재에 의한 양성이 아닌 체험양성)시간이다.(참조: 국가세칙 61,2) 구역모임을 통해 회원들은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의 정체성과 성소를 확인한다.

2. 왜 구역장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가?

구역장의 역할은 ①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구역회원들에게 애정어린 보살핌을 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혹시 관심에서 제외되고 있는 구역원이 있는지 보살펴야 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신(하혈병을 앓는 여자, 나인의 과부, 베짜타 못가의 38년이나 앓은 환자, 태생 소경 등)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변방으로 나가라는 외침을 듣는 일이며,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가 가난한 이들(나병환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돌보셨던 일을 실행하는 일이다.

구역식구의 분포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복잡해보이지만, 우리 가정 생활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의 순서와 형식이 없듯이 구역활동도 꼭 순서와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지원자 모집부터 고령회원 돌보기, 특별배려회원 돌보기, 회원장례까지, 닥치는대로 해야하는 일이 구역장의 일이다. 물론 이 일을 구역장 혼자 할 수 없다. 구역장은 구역식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지치지 않는다. 가정에서 엄마가 지친다고 가정사를 외면하면 그 가정은 깨지고 말 듯이 구역에서 구역장이 지친다고 형식에 치우치면 그 구역은 노란 떡잎처럼 되고 말 것이다.

② 구역장은 교회 정신이 투철하고 프란치스코의 영성과 삶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은 참으로 하는 사람도 난감하고 듣는 사람도 난감하다. 그저 억지로 말아 속앓이하는 구역장에게는 무척 부담가는 말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 프란치스코를 사랑하며 재속프란치스코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말하면 조금 부담이 덜 할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가? 형제회는 교회 의식과 프란치스코의 성소를 진작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구역장은 누구보다 이런 의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의식을 구역원들에게 심어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적 생활을 하는데 구역원들이 함께 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은 구역식구들끼리 미사 참례를 함께 한다든지, 성무일도를 함께 한다든지, 성경공부나 통독을 한다든지, 프란치스코 영성나눔이나 프란치스코의 글 읽기를 한다든지, JPIC 활동을 함께 한다든지, 예비신자 모집이나 지원자 모집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형제들과 한 일 중 어느 하나를 택해 함께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의식과 활동이 함께 할 때, 단위형제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 의식, 프란치스코의 성소, 사도적 활동이 조화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구역장의 역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우리 몸의 실패와 같다. 구석구석 닿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구역장이 형식적이고 불만투성이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면 구역이 망가지는 것을 넘어서

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핏줄을 터지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의 표지가 되어야 할 형제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구역장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교회의식과 프란치스코의 성소 진작, 사도적 활동! 이것이 교회가 우리 재속프란치스코회 단위 형제회가 지녀야 할 모습이라고 명한 것이다. 이를 실행하는 구역장들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처럼 얼마나 아름다운가!

3. 구역담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① 형제회 평의원이다.

-평의회의 결정을 구역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형제회 평의회는 형제회 회원들의 형제회 생활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다. 구역 담당의 역할은 단위형제회가 지니는 세 가지 요소를 단위평의회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도록 평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이 결정사항이 실행되도록 구역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구역담당의 전달 사항은 구역식구들은 단위형제회에 친근한 소속감을 준다. 그런데 평의회 사항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않은 채 구역장들에게 전달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부분의 구역담당들은 의무감과 사랑의 정신으로 이를 잘 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평의회 결정사항을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다시 결정하여 구역장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구역담당의 잘못된 전달은 좌충우돌하는 형제회 모습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구역식구들의 의견이나 불편한 점을 평의회에 전달한다. 구역식구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평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평의회가 결정하면 이를 따르도록 전달하고 때론 설득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구역모임은 단위형제회 평의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형제회 생활에 대해서는 평의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② 구역장들의 어머니 역할이다.

구역장 위에 군림하려는 구역담당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또 구역장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이들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또 평의회에서 구역장의 세를 업고 평의회에 불화를 조장하는 이들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어머니는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과 불안과 불만들을 다 녹여내는 신비롭기 그지 없는 마음을 지녔다.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성모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미움이 있다면 사랑으로 바꿀 줄 알고, 다툼이 있다면 용서할 줄 안다. 분열을 조장하는 구역담당은 없을 것이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자아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덩어리인 사람이다. 구역장이나 회원들이 신앙의 오류가 있다면 진리라는 사다리를 놓아주고, 절망하는 구역장과 회원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어둠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구역장과 회원들에게는 빛이라는 사다리를 놓아주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 위로하고 함께 하며 기쁨의 사다리를 놓아주자.

③ 회원 개인으로서 자기 양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양성이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으리라. 그런데 종신서약을 한 회원은 누구나 다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는 회개하는 이들이며,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 즉 사랑의 완성을 향하기 위해 영적인 자기 진단을 해야 한다. 자신의 모습을 하느님 앞에 발가벗어 놓고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담처럼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자기 양성을 할 때 성 프란치스코의 권고 영의 가난은 많은 도움이 된다.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여러 가지의 기도와 일에 열중 하면서 자기 몸에 많은 극기와 고행을 행하지만, 자기 육신에 해가 될 것같은 말 한마다디에, 혹은 자기가 빼앗길 것 같은 그 무엇에 걸려 넘어져 내내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 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참조: 루카 14,26), 자기 뺨을 치는(참조: 마태 5,39)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권고 14)

오늘 주제인 OFS 성소와 구역의 관계는 자명하다. 구역모임은 바로 재속프란치스칸 성소의 구체적인 실현장소이다. 구역모임이 친교와 양성의 장소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친교와 양성을 통해 구역식구들은 재속프란치스칸의 자공심과 정체성을 다진다. 만일 재속프란치스칸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면 영적인 방황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신자들에게 성 프란치스코의 길을 알려주자. 이는 나의 기쁨이며 형제회의 기쁨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기쁨이다.

<제 3 강의>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부르심과 따름

최문기 마티아 ofm conv.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부르심과 따름

I.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공생활의 첫 시작 -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19)

제자단 형성의 주체 - 예수님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6)

부르심의 내용 - 따름 (Sequela)

“이리 오너라”(X) “나를 따라오너라”(O)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 - 부르심(따름)에 응답하는 삶

‘반복되는 부르심에 지속적으로 응답’

II. 부르심의 권위

구약 : 하느님의 말씀에 의한 구원의 절대성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신명 4,1)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일러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들어라! 너희는 그것들을 배우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신명 5,1)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신명6,4~6)

신약 : 하느님의 말씀(권위)와 예수님의 말씀(권위)를 연결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마르 1:21-22)

권위의 원천 :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 가르치는 내용

예수 - 예수 자신

권위의 부각

산상설교 :

옛 계명의 갱신 “...라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하여라”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시다.”(마태 23,9)

요한복음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요한 5,24)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요한 8,3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요한 8,51)

권위에 순종하는 제자들

부르심에 응답 → 예수님을 따름 → 충실한 말씀의 수용자 → 말씀의 수용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멀리 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느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응답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창세 12,1)

‘아브람은 주님께서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일흔다섯 살이었다.’(창세 12,4)

그리스도의 권위 = 교회의 부요함

“그리스도가 교회의 부요함이 아니라면, 교회는 궁핍합니다. 그리스도가 건축가가

아니라면 교회 건물은 무너집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지식과 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모두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든 교리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겹손 위에 있지 않다면 교회의 모든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즉시 떠올리지 못한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무의미합니다.” - Henri de Lubac

Ⅲ. 공관복음서 안에서 본 부르심과 응답

1. 공통점

예수님의 세가지 요청

- ① 따름 : “나를 따라오너라”
- ② 회개 :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
- ③ 깨어있음 :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마르 13,33~37)

세가지 요청에 대한 장애들 : 언제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렸는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의 부족’

확신없는 자에게 던져진 부르심 : 3차례의 수난 예고

- ① 첫번째 수난예고 : 마르 8,31~32a

제자들의 반응 : “거부”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마르 8,32b~33)

예수님의 가르침 : 희생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

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마르 8,34b~38)

② 두번째 수난 예고 : 마르 9,30~31

제자들의 반응 : 외면과 욕심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마르 9,32)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마르 9,33~34)

예수님의 가르침 : 겸손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5~37)

③ 세번째 수난예고 : 마르 10:32-34

제자들의 반응 : 두려움과 몰이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마르 10,35~36)

예수님의 가르침 : 섬김

십자가를 받아들임 : 겸손, 희생, 섬김

2. 차이점

2-1. 마태오 복음의 특징 - 가난, 의로움, 실천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

① 가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 -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서 겸손과 신뢰, 완전히 열린 마음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특별한 내적 기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코린 1,26~29)

“하느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한 단순함, 신뢰, 전적인 포기, 관대한 추진력으로 왕국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몫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처럼 복잡함, 가식, 정신적 나태함과 타협으로 가득 차서 왕국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하는 데에 익숙한 이들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서 당신의 것을 모두 팔면 어린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만 당신의 백발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Alessandro Pronzato

② 의로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20)

의로움의 능가 - 양적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마태 5,28)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마태 6,3)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마태 6,6)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마태 6,18)

산상설교의 전체 내용은 윤리의 내적 준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로움도 바로 내적 의로움에 관련되어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마태 6,22~23)

③ 부지런한 신앙, 실천하는 신앙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마태 7,21-23).

반석 위에 지은 집 (마태 7,24~27)

두 아들의 비유 (마태 21,28-32)

열 처녀의 비유 (마태 25,1~13)

탈렌트의 비유 (마태 25,14~30)

세상의 소금과 빛 (마태 5,13~16)

2-2 마르코 복음

마르코 복음의 독특함 -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개 방식. 아직 답이 없거나 수수께끼에 가려져 있는 신앙의 질문들을 독자들 앞에 내 놓음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유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 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마르 4,39-40);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뉘를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마르 6:51-52);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마르 7,17-18).

예수님은 늘 완전히 알 수 없는 분, 권능과 위대함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알고 있는 것을 항상 넘어서는 분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혹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영적으로 탐구 해야 하며 하면 할수록 더 크고 더 깊은 곳에서 그분이 발견되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갱신되시는 분으로 존재 내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생각했을 때 늘 예수님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항상 나의 이해의 한계에서 한 걸음 더 먼 곳에 계신 분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끊임없는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분

2.3 루카 복음 - 엄격함

예수님의 부르심 -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마태 4,20)

“그들은…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루카 5,11)

① 절대적 가난 요구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루카 18,22)

② 기도의 필요성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루카 6,12)

③ “쟁기에 손을 얹고” “뒤돌아보지 않을” 의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9,62),

④ “매일” 십자가를 지겠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⑤ 제자직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6).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 철저하고 조건 없는 자기 봉헌. 그 봉헌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 특히 혈연의 유대와 재물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 → ‘가난’으로 귀결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루카 6,20)

가난한 자의 삶 속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해방시키심을 약속하는 계약의 말씀

IV. 요한복음

① 요한복음 - 영적/교리적으로 완성된 정답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열린 상태에서 계속 탐구하고 열고 추진하도록 하는 데에 집필과 편집의 목적이 있다.

부르심 - 공관복음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무엇을 찾느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요한 1,50~51)

요한복음이 말하는 제자의 정체성 -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먹었기 때문이다.”(요한 6:26)

② 예수님의 고별사(요한 13~17)

봉사의 삶 : 세족례의 모범

예수님 공생활의 본질 : 섬김의 삶, 발을 닦아줌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4~15) 라고 말씀 하십니다.

섬김, 제자들의 유일한 삶의 선택

예수님의 고별사의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당신의 가르침은 물론 진리이지만 제자들이 완전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요한 16,12~13)

제자들의 삶, 부르심을 따르는 삶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위로자 성령 세 위격의 상호 친교 안에서만 이어져 갈 수 있으며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삼위의 친교 안에서 복음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지속적인 부름을 받음.

때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르심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자유롭고 생생하신 성령의 활동에 장애물을 새우지 않도록 경계할 것.

사 례 발 표

사례발표 1. 동서울지구

동서울은 비안네, 엘리사벳, 글라라, 실베스텔, 요셉, 맛세오 이렇게 6회 있습니다.

형제회	구역	활동인원	특별배려원	잠정적회원
비안네	11	90	9	0
엘리사벳	11	118	47	31
글라라	15	189	33	26
실베스텔	10	117	40	16
요셉	5	33	1	0
맛세오	16	148	46	26
합계	68	695	176	99

저희 동서울지구는 2021~23년까지 자체적 특별배려회원과 잠정적회원 방문 및 서류상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라라의집 제기동프란치스코의집 지구살리기, 7년여정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비안네는 22년도 12월에 평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5개월동안 ‘작은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 하자’ 입니다.

11구역 중 현재 4구역 방문 했습니다. 비안네는 천안 구역분들이 계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9명의 지원자가, 23년도는 12명의 지원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일도 피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연장 못하는 회원들이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월례회의나 교육 피정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엘리사벳는 월례회의 출석율을 높이기 위해 22년도 출석현황이 좋지 않은 회원들에게 자체적 특별 배려 회원과 잠정적회원을 분리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문서를 만들어 영보님과 봉사자가 싸인을 한 후 3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여 출석을 높였습니다. 고령화 회원과 병자회원 관리를 위해 매월 1인당 천원씩 형제적 나눔기금으로 적립 한 후 입원환자들 방문시 나눔을 하였습니다.

구역이 17구역인데 인원수가 2.3명인 곳은바로 옆 구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11구역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임원직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구역장 선출은 각 구역 출석부 현황 순서대로 1년씩 돌아가면서 구역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역장 회의 시 구역장이나 평의원은 누구나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임원직 하기 싫어서 종신하지 않겠다고 했고 3월 5일 동서울

지구 임원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구 살리기 걷기를 매달 조끼 입고, 팻말을 들고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글라라회는 올 7월에 선거총회를 합니다.

6개월미만은 검직이 가능하여 구역장님이 부봉사직과 검직을 하고 있습니다. 글라라는 밴드를 만들어 독서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앙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배려회원 한사람과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회원을 짝지어 주고 평의원들은 그 짝궁들의 활동보고를 받으며 확인합니다.

1년에 1인당 15,000원씩 별도 회비를 걷어서 한사랑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베스텔은 회원 관리를 국가규정과 세칙과 저희 회칙, 회헌을 열심히 회원들에게 알리고 특별배려회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 출석관리(국가규정-제16조, 국가세칙-제66조)

- ① 구역 모임과 월례회 참석을 각 년 3회 이상 결석 회원 관리
- ② 본당 생활은 충실하면서 형제회에 장기 결석한 회원.
- ③ 각 모임 진행 중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회원.

2. 특별배려회원 분류(국가규정-제18조, 국가세칙-제67조)

- ① 건강 사유 - 건강, 노환, 고령.
- ② 가정 사유 - 가족 돌봄, 가사.
- ③ 직장, 유학 사유. - 적절한 기간.
- ④ 연락두절 사유 - 본인, 가족차단.
- ⑤ 기타 사유 - 본당 충실, 형제회 회원 간 불화.
- ⑥ 탈회요청 사유 - 자발적 퇴회, 개종.

* 특별배려 회원을 각 구역별 상기사유로 분류하여 4), 5), 6)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리방안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별배려회원의 기간 명기, 갱신서 작성 기간, 해지 신청서 작성

3. 잠정적회원 분류(국가규정-제19조, 국가세칙-제69조)

① 잠정적 회원 중 고령이나 기타 등으로 연락이 안되는 회원 관리는 국가형제회에서 관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4. 불성실 회원관리(국가세칙-제68조)

① 국가세칙 제68조1항에 의한 적용 방안 국가형제회의 세밀한 기준 설정 요함.

<국가세칙>

제65조 (회원의 전출입)

① 회원이 합당한 사유로써 다른 형제회로의 전출을 희망하면, 먼저 소속 형제회의 평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속하고자 하는 형제회 회장에게 전입 사유서를 제출한다. 이 형제회의 평의회는 이전 형제회로부터 서면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 본 다음 전입을 결정한다.(참조 : 회헌 제55조)

③ 형제회가 전출을 접수받으면 회원카드, 회비 현황을 갖추어 전입하려는 형제회로 보내야 한다.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④종신서약자 이상의 전출입은 회원 전산프로그램 (인트라넷)을 통해 처리한다.

제66조 (출결 관리)

① 단위형제회의 평의회는 월례회를 포함한 월 2회 이상의 출결 사항을 관리한다.

② 출결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구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67조(특별배려회원)

① 회헌 제53조에 의하여 건강이나 노환, 가정, 직장이나 그 외 부득이하고 분명한 사유로 장기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해당평의회가 특별배려회원으로 돌보며, 평의회는 방문, 서신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위로와 격려로 그의 형제적 삶을 도와야 한다(참조 : 국가규정 제18조 1항)

② 해당 평의회는 이런 회원들을 담당하는 부서나 책임자를 둘 것이며, 특별배려회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합당한 기간과 조건을 정할 것이다.

③ 특별배려회원들도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평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특별배려 회원에게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으나, 이를 기록부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제68조(불성실 회원)

① 불성실회원

1) 1년 3회 이상 월례회에 무단결석 한 회원.

2) 1년에 6회 이상 지각을 반복하거나 습관적으로 월례회 중간에 나가는 회원.

3)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

4) 악 표양을 보이는 회원.

5) 형제회의 공적인 결정에 역행하도록 선동하는 회원.

② 형제회는 형제적 사랑으로 불성실한 회원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변화가 없을 시 당사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시 한다.

제69조(잠정적 처분)

①자발적 잠정적 퇴회

1) 어려움에 처한 회원은 형제회로부터 자발적 잠정적 퇴회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봉사자와 영적보조자가 당사자와 형제적 대화를 나눈 다음, 평의회는 사랑을 갖고 또 신중하게 이 요청을 평가한다. 동기가 합당하면 그 형제에게 다시 생각할 여유를 준 다음에 평의회는 그의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참조 : 회헌 제56조1항)

2) 자발적 잠정적 처분 중에 있는 회원은 형제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형제회의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없다

3) 형제회 평의회는 자발적 잠정적 퇴회자에 대한 모든 과정을 기록 보관하고 이를 공고한다.

4) 청원자는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 퇴회를 요청해야 그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5) 자발적 잠정적 퇴회를 요청한 회원은 요청 기간이 끝난 후 형제회 봉사자에게 형제회 복귀를 신청 할 수 있다. 평의회는 형제회 복귀 신청의 사유를 심사한 다음에 자발적 퇴회를 결정했던 이유가 극복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긍정적인 경우 그를 형제회에 복귀시키고 형제회의 장부에 그 결정을 명기한다.

6) 자발적 잠정적 퇴회한 회원이 기간 내에 다시 형제회로 돌아오지 않을 때 평의회는 형제적 대화를 한후 변화가 없으면 회원 제56조2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요셉은 활동인원이 33명입니다.

인사방법은 서로를 안아 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들이 양성교사이며 입회2반은 무조건 선교나 정평창보 부서로 합류 됩니다. 한달에 한번씩 마니토를 바뀌어 가면서 서로 기도 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아 항상 월례회의 후 찰밥을 나누어 먹습니다.

맛세오는 회개, 소통, 생태적 삶을 살자 입니다.

회칙, 회헌 독후감 쓰기 등을 하여 상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회는 바깥이 아닌 우리 안부터 살피는 회원이 되자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로 행동하지 말자입니다. 코로나때 총구역장이 각 구역장님들에게 줌 교육을 하고 혼자서 못하는 분들은 1:1로 다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다 줌을 깔아 드리는 작업을 한후 100% 다 줌으로 구역모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6개 동서울지구 형제회의 활동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발표 2. 대구지구



대구지구 구성 및 현황

대구지구는 14개 단위형제회와 안동 준비형제회로 81개 구역, 592명의 회원, 191명의 특별배려회원으로 (총 783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형제회의 평균출석률은 약 72%이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구역 모임 활성화를 위해 구역담당과 구역장이 구역장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며 노력한 결과, 점차 구역모임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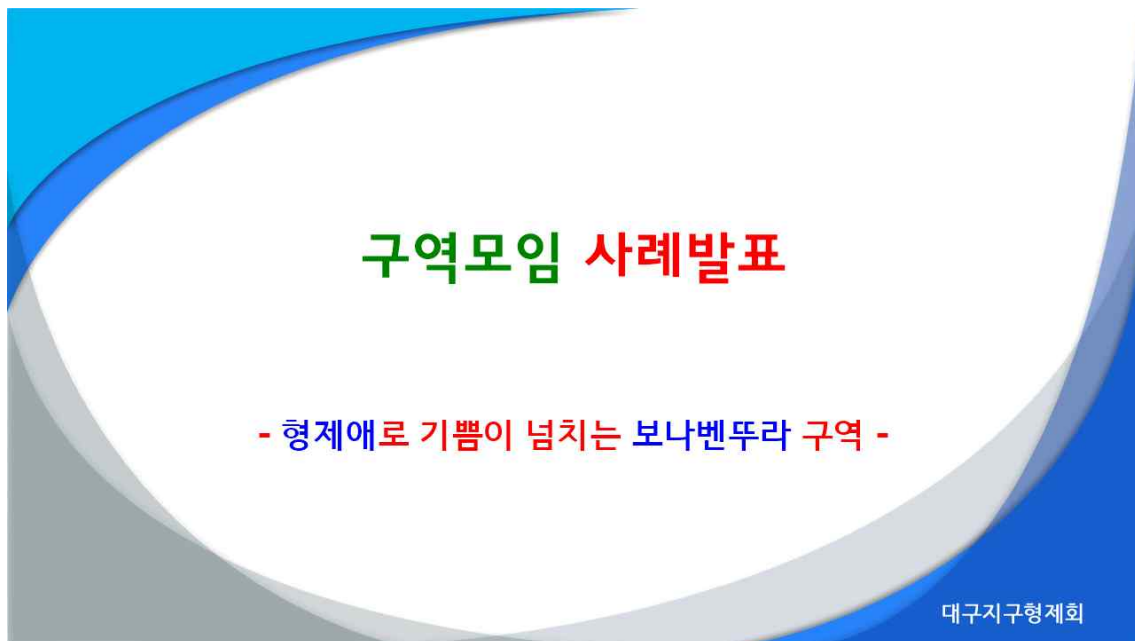
또한 아직도 구역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한 형제회에서는 구역을 소규모로 재편성 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구 형제회 사례 1

24명의 작은 형제회의 한 구역(구성원9명)의 사례입니다.

종신서약 30년이 넘으신 올리안나 회원님은 몸이 불편하십니다. 월례회 미사는 참석하시지만 구역모임 참석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올리안나 회원님은 함께 하고픈 간절한 마음에 구역모임 장소로 자택을 제공해주셔서 모두 함께 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구역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나벤투라 구역에 어떻게 구역모임을 하고 있는 지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별도 첨부)



우리 구역을 소개합니다.

- 2023년 지구, 단위 구역담당 연수회에서 **대구지구 루도비코형제회 보나벤투라 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특별한 것은 없으나 늘 새로움으로 기다려지는 구역모임입니다.
- 구역 현황
 - **구성원(9명)**: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지원자 도밍고 형제**, 든든한 **유기서약회원 프란치스코 형제**, **따끈따끈 종신서약한 지 1년되는 안나와 마르타 자매**, **종신서약 30주년이 넘으신 올리안나 어르신**, 그리고 **베로니카, 요셉, 마리아, 데레사**입니다.
 - **모임방**: 혼자 생활하시는 **올리안나 회원께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편하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 **언제**: 매월 4째 주일 13시 ~ 15시30분

대구지구형제회

2

영적여정의 동반자, 형제들과의 삶

-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성소의 삶**'을 나누며 **영속적 양성이 되는 시간**
 - 함께 '평화의 사도'를 읽은 후, 형제회 결정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권고'를 읽고 1시간30분정도 나눔
- **차와 간식은 우리의 친교를 더욱 풍성하게**
 - 회원들이 조금씩 가져오거나, 구역회비로 조금 준비해서 30분 정도 화기애애하게 담소
- **양성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 나눔을 마치고 근처 진천천에서 줍깅, 줍깅은 매월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대구지구형제회

3

영적여정의 동반자, 형제들과의 삶

○ 우리구역 어르신은 우리가 챙긴다.

- 몸이 불편하신 율리안나 어르신은 힘들어도 월례회 미사에 꼭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차로 월례회에 모시고 댁에 들어가실때에는 카카오택시로 무사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콜택시 전담을 프란치스코형제가 맡고 있다.

○ 내것이 내것이 아니니

- 구역에서부터 해보자!...안쓰는 물건을 프리마켓으로 올려서 구역에서 소진이 안되면 형제회로 ... 판매금은 구역에서 따로 관리하여 환경살리기에 보태자!

대구지구형제회

4

영적여정의 동반자, 형제들과의 삶

○ 합동 구역모임

- 율리안나 어르신은 몸이 힘들어 월례회 미사만 참석하셔서 회원들과 보내시는 시간이 부족하시다, 또한 초기양성자들과 종신회원들과의 친교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우리형제회 이웃 구역과 합동 구역모임을 갖기로 했다. 작은 월례회, 큰 구역모임이 보고 또 보고싶은 형제회가 되기를...

○ 하느님과 자연과 더불어

- 연 1회는 야외에서, 1회는 구역 피정으로
- 청도 '성모 솔숲마을', 대구교구 '성모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친교의 시간을...
- 기장 월광수도원에서 1일 피정(예정)

대구지구형제회

5

영적여정의 동반자, 형제들과의 삶

○ 일상속에서 형제들과 생활 나누기

-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마리아 회원 텃밭을 찾아 일손(?)을 보태고 구역모임 함께 하기
- 근교에 농막을 짓고 텃밭을 가꾸는 안나 회원을 방문하여 구역모임을 함께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 작은 노력에도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 형제들과 무우, 배추, 풋고추, 감자 등 수확한 농작물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
- 우리는 일상의 소소함에서 형제애를 더욱 깊게 느낀다.

대구지구형제회

6

영적여정의 동반자, 형제들과의 삶

○ 앞으로의 계획

- 형제애를 촘촘하게
사정이 있어 현재 나오지 못하는 특별배려회원들과 함께 형제회 생활를 하지 못한 새 식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갖기
- 세상안에서 '성소의 삶'을
구역회원들과 함께 나눔의 삶 살기: 사도직 실천(논의 중)
- 양성은 쉽지만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구역 스터디

대구지구형제회

7

사진으로 보는 이모 저모 - 구역모임



다과와 함께
나눔은 이어지고



대구지구형제회



프리마켓 물품 소개

8

사진으로 보는 이모 저모 - 야외에서



성모솔숲마을



성모당 구역모임

대구지구형제회

9

사진으로 보는 이모 저모 - 텃밭에서



대구지구형제회

10

사진으로 보는 이모 저모 - 줍깅



대구지구형제회

11

사진으로 보는 이모 저모 - 줍깅



대구지구형제회

12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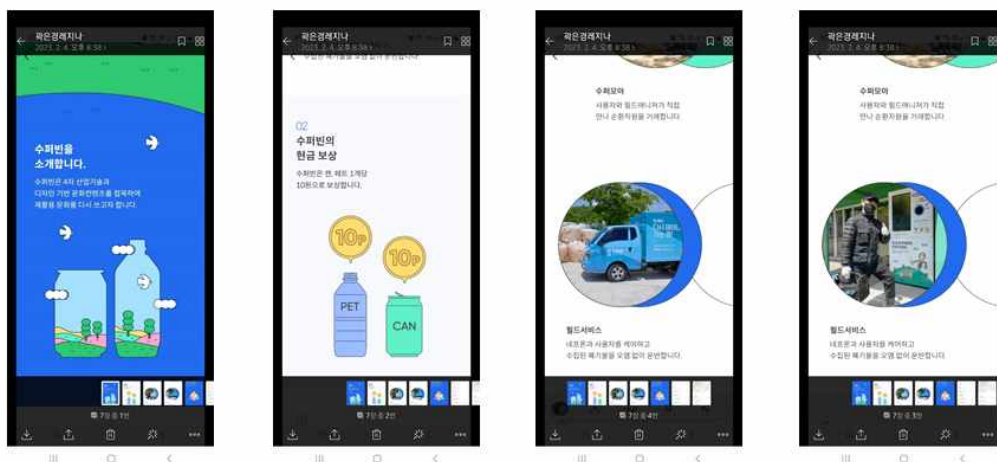
대구지구형제회

13

대구지구 형제회 사례 2

경북의 한 형제회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월례회를 하는것조차 힘들어 하는 상황에 있었으나, 본당 화장실 청소 등 굿은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본당에서도 재속 프란치스코회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제는 본당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수거활동 및 EM 무료나눔 환경실천 활동을 통해 지금 마련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수거 활동 - 수퍼빈



플라스틱 수거 활동

캔과 페트병 분리수거와 세척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EM 무료나눔 환경실천 활동



기금 현황

수퍼빈 활동을 통해 2022년, FI 재난기금 10만원 보냈습니다.

23년 현재, 11만원 기금 적립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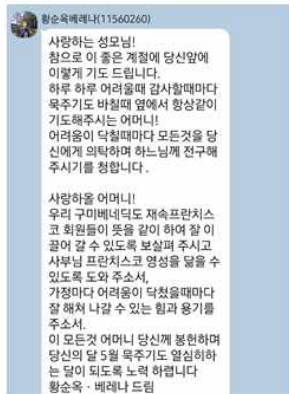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작은 성모의 밤 행사

23년 5월 6일(토) **재속 프란치스코회** 주관으로 작은 성모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작은 성모의 밤 행사 편지 낭독

성모님께 바치는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구 형제회 사례 3

정평창보와 연계해서 환경지키기 일환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창조질서에 동참하려
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비닐봉지, 일회용품 거절하기
- 투명페트병 라벨제거하고 버리기
-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 개인컵 가지고 다니기
- 냉장고 60%만 채우기 등

각 구역 모임에서 실천표를 작성하여 실천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구 형제회 사례 4

남성 구역모임 시작

- 남성 형제들이 숫자가 적어 형제회나 구역모임에서 적응을 어려워 함.
- 남성 구역을 별도로 편성해서, 회원의 본당을 순회하면서 미사 후, 본당신부님께 인사도 드리고, 신부님 허락 하에 그 본당 교리실에서 구역모임을 하고, 친목도 도모하여 활성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 효과: 남성회원들이 형제회 생활에 기쁨을 찾고 형제회 운영에 솔선수범하여 형제회 활성화에 도움이 됨.



<자료>

구역담당(구역장) 길잡이

2021. 12.

재속프랜치스코회 국가형제회

친 교

김인철 스테파노 ofm cap.
전)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친교 (koinonia)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계시된 참 하느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

친교라는 의미를 지닌 ‘코이노니아’는 신약성경에 사용되는데, 주로 바오로 서간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요한의 첫째 편지 등에 나타난다. 이 단어는 사귄, 나눔, 참여, 일치, 완전한 상통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느님과 친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 1, 3)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 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 1, 6)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귄 수 있겠습니까?”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6, 14)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둘째 서간 1, 4)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 11)

그리스도님과 친교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 9)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0, 16-17)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9, 23)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6)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어 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2, 14-15)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3, 10)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째 서간 4, 1)

성령님과 친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3, 13)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 1)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친교

“티토로 말하면, 그는 내 동지이며 여러분을 위한 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의 이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교회들의 대표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8, 23)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17)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 14)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0, 33)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행전 2, 42)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 6)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6, 18)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3, 16)

“그러면서 성도들은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8, 4)

“그들은 이 구제 활동을 높이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9, 13)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5, 26)

성사와의 친교(communion 친교, 일치)

“성사의 공유. “모든 성사의 효과는 신자 전체의 것이다. 성사들, 특히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과 같은 세례성사는 모두를 서로 묶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성사의 공유로 이해하고 있다. 성사는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켜 주므로, 모든 성사는 친교의 성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교를 완성시키는 주된 성사는 성체성사 이므로 친교의 성사라는 말은 성체성사에 더 적합하다.”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결합된다. “그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나누어지며, 신자들은 수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성사를 통하여 신비롭게 실제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결합시키는 세례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성찬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실제로 주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 사이에 친교를 이루도록 들어 높여진다.”(가톨릭교리서 790)

다른 두 성사, 곧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성사들은 개인적인 구원에도 이바지하지만, 그것은 타인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성사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하느님 백성의 형성에 이바지한다.(가톨릭교리서 1534)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겪어 온 이 성사의 규칙과 거행을 통틀어 볼 때, 불변하는 기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한결같이 두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성령의 감도로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를 통한 하느님의 행위이다. 곧 교회는 주교와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고, 보속의 방법을 정해 주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와 함께 속죄한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치유되고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회복하게 된다.(가톨릭교리서 1448)

천상 교회와 지상 교회의 친교(communio 친교, 일치)

성인들과 이루는 친교. “오로지 표양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늘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공경할 뿐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형제적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온 교회의 일치가 성령 안에서 강화되도록 그렇게 한다. 나그네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친교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인들과 이루는 통공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고, 온갖 은총과 하느님 백성의 생명 그 자체가 그 원천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교리서 957)

죽은 이들과 이루는 친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의 이러한 친교를 명백히 인식하는 나그네들의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교 이래로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커다란 신심으로 소중하게 간직하여 왔으며,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유익한 생각이기 때문에(2마카 12,45 참조),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를 바쳤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다.(가톨릭교리서 958)

교계 제도에서의 친교(communio 친교, 일치)

“성전과 성경에 담긴 “신앙의 유산”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체 교회에 맡겨졌다. “거룩한 하느님 백성 전체는 이 유산에 충실하면서, 목자들과 일치하여 꾸준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맺으며, 빵을 떼는 일과 기도예 항구히 전념한다. 그리하여 전해진 신앙을 고수하고, 실행하며 고백하면서 주교들과 신자들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가톨릭교리서 84)

기도와의 친교(communion 친교, 일치)

기도 생활이란 평소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면전에서 지내는 것이며,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생활은 언제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그만큼, 그리스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의 차원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차원이다.(가톨릭교리서 2565)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가톨릭교리서 2799)

관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의 관계가 맺어진다. 관상 기도는 성삼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인 인간을 ‘당신과 닮게’ 하시는 친교이다.(가톨릭교리서 2713)

관상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의 눈길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안네 성인이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감실 앞에서 기도하던 한 농부가 한 말이다.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자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눈길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시선의 빛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준다. 그분의 진리와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에 비추어, 우리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관상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향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이리하여 관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내적 지식’을 배워 그
분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게 된다.(가톨릭교리서 2715)

구역모임은 왜 하나요?

작은 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안에 흐르는 교회의 본 모습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려는 ‘지금 교회’의 실천적 움직임이며 성령의 활동이다. 곧 공의회가 제시하는 하느님 백성의 친교의 교회 공동체라는 전망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설정하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 곧 구역모임은 형제애가 깊숙이 느껴지는 초대교회의 사도적 생활이 지니는 이상적인 작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형제회 원래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곳이다.

구역모임은 왜 생기게 되었나?

회칙24조는 “평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형제회의 정기적인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가지며.... 또한 모든 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하도록 격려하며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회헌 53,1은 “형제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합을 통하여 회원에게 만남과 유대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국가규정(6,1)은 회원들이 월례회를 포함하여 월2회 이상의 형제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역모임을 월례회와 함께 정기적인 모임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국가세칙(61,2)에서도 정기모임인 월례회 외에 “형제회는 가능한 한 구역모임을 조직할 것이며, 이 구역모임이 양성과 친교의 장이 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구역모임은 회원들의 실제적인 초기 양성과 영속적 양성의 장이 되고 친교의 장이 되는 프란치스칸 모임이기에 월례회와 구역모임은 서로를 보충해주는 삶과 피로써의 역할이라 하겠다.

구역모임은 왜 필요한가?

회칙은 단위형제회를 전체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첫 번째 세포라고 규정하고 있다(22조),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인 단위형제회 구성원으로 한국의 단위형제회는 회원 30명 정도의 작은 단위형제회로부터 약 330명 정도 회원이 있는 거대한 형제회까지 있다. 특히 서울지구들의 50% 이상이 2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큰 단위형제회들이다.

형제회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고 월 1회의 월례회만으로는 친교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자주, 긴밀한 형제애가 깃든 삶을 나누고자 더 작은 공동체로서의 형제회 형상인 구역모임이 필요하여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역모임이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세포이며, 사실상 형제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의 모임이 된 것이다.

구역모임의 의미는?

비대한 월례회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형제적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구역모임이며 본당이나 지역에 파견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구역모임이다. 또한 이 구역모임에서 회원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부심까지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 51항에서 작은 공동체 모임에 대한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구역원 각자가 책임과 역할을 공동으로 나누며 자율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복음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구역모임이라고 생각된다. 구역모임에서 공동의 삶 속에서 물질이든 생각이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이의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되고 중요한 지체가 되어 활동해야 한다. 물질과 경험을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구역모임이 월례회를 보충하여 어떻게 형제회 생활을 통하여 더 나은 프란치스칸이 되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함께 대화하고 사고하며 복음과 회칙의 삶, 본당사목 협조 같은 공동의 관심사로 더 나은 사도적 봉사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4조에서는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복음을 살면서 월례회에서는 긴밀하게 다룰 수 없는 일들을 구역모임에서는 더욱 자주, 가까이에서 서로간의 삶의 현장을 깊숙이 이해하며 나누는 복음이 삶으로 되어가는 의미와 과정과 결과를 서로 교환하며 세상에 살면서 날로 나약해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북돋으며 권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 구역모임을 작은 교회의 본보기로 하여 형제회와 본당, 세상을 쇄신하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구역모임은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회칙 제21조

각 등급의 모든 형제회는 회헌에 따라, 서약한 회원이 선출한 평의회와 회장(또는 의장)에 의해 촉진되고 이끌어진다. 이들의 봉사는 기한부이며, 모든 회원과 공동체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고 책임이 따르는 직무이다. 각 형제회의 내부 조직은 회헌에 따라, 그 회원들과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또 각 평의회의 조정 아래 다양하게 구성된다.

회칙 제24조

평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형제회의 정기적인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가지며, 다른 프란치스칸 그룹, 특히 청년 그룹과의 만남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이가 형제회 생활에 열심 하도록 격려하며 프란치스칸 삶과 교회의 삶이 향상되도록 더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 친교는 사망한 형제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받쳐 줌으로서 그들과도 지속된다.

회헌 제40조

1. (회칙 23) 초기 양성기는 적어도 일 년은 되어야 한다. 국가 규정은 그 기간을 더 늘려 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의 목적은 성소의 성숙, 형제회 안에서 복음적 생활의 체험, 형제회에 대한 지식 등에 있다. 이 양성은 잦은 공부와 기도 모임, 구체적인 봉사와 사도직 체험 등으로 실행할 것이다. 가능하고 또 좋다고 생각되면 타 형제회의 양성대상자들과 공동으로 가질 것이다.

회헌 제49조

1. 단위 형제회의 평의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양성담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형제회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를 더 둘 수 있으며, 영적보조자는 법적으로 평의회원이 된다.

회헌 제50조

1. 단위 형제회 평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형제적 생활을 촉진하고, 회원의 인간적, 그리스도교적, 프란치스칸적 양성을 복돋우고, 회원의 증거생활과 세상 안에서의 임무를 격려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증진시킨다.
 - 형제회의 상황에 맞게 사도직 영역이 가능한 여러 활동 중에서 구체적이고 용기 있는 일을 선택한다.

회헌 제53조

1.(회칙24) 형제회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그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합을 통하여 회원에게 만남과 유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규정 제16조(단위형제회 모임의 참여)

1.회원은 형제적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형제회의 월례회를 포함하여 월2회 이상 형제회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참조: 회칙 제24조, 회헌 제53조)

국가세칙 제61조

2. 가능한 한 구역모임을 조직할 것이며, 이 구역모임이 양성과 친교의 장이 되도록 한다.

주) 구역, 구역모임, 구역장이란 표현은 없다, 단지 각 형제회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를 더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와 교회안의 구역모임은?

1. 교회 안의 소공동체

한국교회는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구역 안에 소공동체 모임을 만들어 복음을 나누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같은 동네에 사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정신을 배우고 익히며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사도 3,42-47)의 형제애를 키우고 있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② 친교를 나눈다. ③ 빵을 떼어 나눈다. ④ 기도한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성찬전례, 친교와 기도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공동체이다. 한국교회의 각 본당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본받아 소공동체라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이 소공동체를 통해 크리스천 정신을 체험하며 신앙을 키운다. 이 소공동체는 본당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본당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

2.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 구역모임

1) 구역모임의 목적

교회가 소공동체를 통해 크리스천 정신과 신앙을 돈독히 하는 것처럼 한국의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각 형제회마다 구역모임을 통해 형제애를 나누고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삶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

2) 구역모임의 의미

월 1회의 월례회 모임만으로는 형제애를 나누기가 어렵고, 대형화되는 형제회 회원들의 결속과 친교를 위해, 그리고 체험적 양성을 위해 구역모임이 만들어졌다.

각 형제회 상황에 따라 구역모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단위형제회가 비대해지면서 전국적으로 구역모임이 정착하게 되었다.

구역모임이 형제회에 정착된 데는 회헌에 근거한다. 이를 참고하여 본당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모임을 조직하고 친교를 나누고 회원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였다.

구역모임은 한국 재속프란치스코회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다. 곧 월례회 참석의 의무 외에 의무적으로 한 번 이상 형제회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구역모임 참석이 바로 의무라는 것이다.

월 1회의 월례회는 사부님 당시에도 있었다(우골리노 회칙 참조)⁺. 월례회는 재속프란치

스코회가 창설된 후 지금까지 800여 년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월례회는 늘 교회의 표지가 되어 왔다. 그리고 형제적 사랑의 장소였다.

프란치스코는 ‘작음’과 ‘형제애’가 바로 회원들의 삶이길 바랐고, 수도회 이름도 “작은형제회”라고 하였다. 구역모임은 바로 “작음(minor)의 정신”과 “형제애(fraternal love)”가 가장 잘 드러나고 돈독해지는 장소이다. 회원들에게 구역모임은 영신적 가정인 것이다.

3) 작은 월례회로서의 구역모임

구역모임은 프란치스코 정신의 구체적인 실현 장소이다. 회헌이 말하고 있는 단위형제회의 형제애는 바로 구역모임에서 이루어진다.

구역모임은

- ① 형제회의 각종 행사와 활동, 각종 모임을 회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실행한다.
- ② 형제회에 대한 의견 제시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 ③ 성경말씀과 사부님의 행적을 나누고 재속프란치스코 삶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결심을 한다.
- ④ 회원들의 근황과 삶을 나눔으로써 친교와 형제애를 돈독히 한다.

즉 구역모임에서는 월례회에서 다 취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은사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작은 월례회라 할 수 있다. 어떤 구역은 본당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역사도직을 정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또 삶을 나누고 사적인 어려움이나 고통까지도 나누는 곳이 바로 구역모임이다.

이 복된 모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곧 구역모임이 바로 사랑의 교회의 볼 수 있는 표지여야 하고, 표지가 된다. 사실 구역모임은 복음생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구역모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역장은 노력해야 한다. 교회와 프란치스코 삶의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구역담당 평의원과 구역장

1) 구역담당

구역담당 평의원의 역할은 광범위하며 그 책임은 막중하다. 평의회에서 결정하고 형제회의 실천적 행위들이 구역담당 평의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의회의 결정을

† 19. 모든 형제자매들은 어떤 도시나 장소에서든 매달 모여야 하고 봉사자들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때에 봉사자들이 정한 성당에 모일 것이며, 미사에 참여할 것이다.

구역담당 평의원이 확실하게 숙고해야만 구역장에게 전달하고 구역회원들에게 전달되어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형제회의 월보가 있다 하더라도 구역장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격려와 이해의 장을 열어주는 사람은 구역담당 평의원이다. 구역담당 평의원의 직무를 정리해 보면,

- ① 평의원으로서 평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며, 구역장 회의에서 받은 구역현황들을 평의회에 보고한다.
- ② 구역장 회의를 통해 평의회 결정사항들을 구역장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며 그 추진을 위해 구역장들을 독려한다.
- ③ 구역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의회에 건의하고, 형제회를 위해 실행 할 수 있는 일들을 평의회에 제안한다.
- ④ 구역담당 평의원이라는 직무 외에 형제회 전체에 대한 안목과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
- ⑤ 구역장들이 프란치스칸 방법으로 구역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형제회에 대한 애정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구역담당 평의원은 각 구역장들과 잦은 모임을 통해 구역장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구역담당 평의원은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의원의 한 사람이기에 구역장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혜와 처신이 필요하다.

구역장을 통해 평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현실을 평의회에 알려 영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형제회가 활력을 얻고 성장하게 되는 곳이 구역이다. 곧 구역모임은 형제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공동체로서 형제애를 나누는 장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이 실현되는 곳은 구역모임이다

2) 구역장

한국과 같이 구역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에서는 구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역장을 통해 회원들이 형제회 생활에 감사하며 기쁘게 소식을 전달받고 전달하기 때문이다.

구역장이 구역모임을 형식적으로 이끌면 회원들은 구역모임의 흥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형제회 생활에 대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

형제회 월례회에 가셔도 회원 전체와 친교를 나누기 힘들는데 구역모임에 와서도 그저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모임으로 그친다면 영신적 가정의 모습을 꾸려가기 힘들다. 회원들을 살피주고 배려하고 함께 할 때 구역모임 안에서 비로소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된다.

성숙한 회원이라면 구역장을 도와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구역모임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구역장은 무엇보다 영신적 어머니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 구역 봉사자의 자세

1) 올바른 신원의식을 기지고

무엇보다도 봉사하기에 앞서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그 주체인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재속프란치스칸인 나는 다른 이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구역장이 재속프란치스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구역 회원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모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 ① 형제회 회원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②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 ③ 늘 깨어 기도하며 자상하게 회원들을 돌보고 회칙과 회헌 그리고 국가규정 등을 자주 읽어보고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작음의 정신으로 하느님을 섬기듯

작음의 정신은 다른 이에게 봉사하려는 자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구되는 자세는 관대하고 부드러운 겸손의 자세이며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하느님의 종으로서 모든 대화에 열려있고 친교와 주변의 모든 관계에 함께 하려는 평화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모든 재속프란치스칸 봉사, 프란치스칸 가족 봉사, 그리고 교회에 대한 봉사, 이 모두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의 모범에 기초한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 목숨을 내어주고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가셨기에 우리 역시 보상을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봉사해야 한다. 봉사는 ‘주님께서 나를 원하셨으니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따름’이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3) 참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 참되고 완전한 기쁨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온갖 모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도 현세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회개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쁨을 주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의 봉사는 섬김이나 대가를 바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곧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되돌려드리고 찬미를 드리는 기회로 생각하고, 또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형제회 봉사자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봉사의 정신으로 그리고 직무를 받아들이고 때와 같이 내어놓을 때도 똑같은 순응성으로 형제회에 사랑을 보여야 한다(회헌 32,2). 이처럼 모든 회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회원을 섬기며 봉사해야 한다.

5. 구역 담당(구역장) 봉사자의 역할

1) 행정 실무자

프란치스코 성인은 특별히 행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의 말씀에서 행정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행정은 효율적인 처리가 으뜸가는 목적이 아니라 형제회의 친교와 프란치스코의 은사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정신으로 구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① 구역장은 구역모임을 이끌고 책임지는 주님의 봉사자이다.
- ② 구역장은 평의회결정사항들을 실행하는 실무자이다.
- ③ 회원들의 어려움과 형제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구역장회의를 통해 구역담당평의원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이다.
- ④ 별도관리회원 상황, 회원 변동사항, 회원들의 장례, 축일 등 평의회에 알려야 할 사항을 평의회에 알리는 서기역할이다.
- ⑤ 구역모임에서 친교차원의 일들은 회원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 형제애의 모범이다.
- ⑥ 프란치스코 영성과 교회,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형제회원들을 인도하는 양성자이기도 하다.
- ⑦ 형제회나 본당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도직 활동을 솔선수범하는 재속프란치스코의 거울이다.

2) 형제애 실천가

프란치스코는 회원 서로간의 사랑을 어머니다움으로 말하고 있다. 곧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기르는 것처럼 각자는 하느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기르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사람이 구역장이다. 구역장은 구역모임이 형제애와 친교의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무엇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행정적인 일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고 실제로 애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들을 위한 기도 역시 병행해야 한다.
- ② 구역장은 누구보다 형제회를 사랑하는 재속프란치스코로서 사랑과 화해의 모범을 보이는 평화의 사도여야 한다
- ③ 구역장은 무엇보다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회원 안에 그리고 신자들과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어려움을 감수 인내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 ④ 결코 무엇을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겸손의 대가이다.

3) 회원 돌봄

- ① 구역장은 형제회원 돌봄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회원돌봄은 우선적으로 소외되고 가

난한 이들을 찾아야 한다(회칙 13조). 별도관리자, 환자, 잠정적처분자 등에 대해 늘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 형제회보나 평화의 사도 등을 구역식구들을 통하거나 초기양성자와 동행하여 직접 전해주며, 지속적으로 형제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 ② 초기양성자(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신사정(프란치스칸 영성)을 살펴 그들이 회원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입회 서약 면담 자료인 구역장의 평가서는 객관적이고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회 서약 결정은 평의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의회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사도직 활동

사도직 활동으로 정평창보 활동이나 선교활동(예비자 모집, 지원자 모집, 청년회원 모집, 본당의 교리교육 등)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스스로 뛰고 독려한다. 구역 모임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5) 본당과의 관계

구역장은 본당과의 관계를 원할하게 해야 한다. 본당의 식구로서 본당 안에 스며들어야 하며,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모범적인 신자생활을 하고, 구역회원들이 본당에서 순종과 애덕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구역 회원들끼리 본당에서 부족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찾아 하는 것도 좋은 모범이 된다.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반면 본당의 필요한 부분들을 눈여겨보며 그 필요를 채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재속프란치스칸들은 교구장의 사목적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본당 사제들이 이를 실천하는 재속프란치스칸들의 모범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지역사회 안에서

구역장들은 회원을 넘어서서 본당과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아야 될 이들이 있으면 본당이나 형제회에 알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 하느님 나라 건설(회칙 14조)에 한 몫을 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구역모임에 회원이 아닌 이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도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구역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제회(구역) 공동체란 구성된 회원 형제들 간의 인격적인 사귄과 나눔을 실행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 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신약성경에선 ‘친교 (Koinonia)’라고 말한다. 곧 진정한 친교는 내 옆 형제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온다.

구역모임은 형제회의 가장 작은 세포이다. 진실한 신앙으로 돈독한 구역모임을 활성화 시킬 때 형제회가 살아나며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된다. 구역회원들 사이의 진실한 사랑과 나눔의 유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1. 구역모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4요소)

1) 모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프란치스칸 삶을 잘 살아보고자 모이는 것이다. “단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2) 묵상한다.

복음을 읽고, 복음을 살자는 우리의 회칙, 프란치스코의 글, 권고 등을 읽으며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살았는지, 또 우리는 어떤지 살피고 나눈다.

3) 활동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구역모임에서 많이 듣고, 깊이 느끼고, 새롭게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

4) 교회(본당), 형제회와 일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구역모임은 본당에서 장소를 제공 받고 있다. 재속프란치스칸들은 본당에서 사목 방침에 적극 앞장서 따르는 모범을 보이며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며, 또한 형제회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2. 구역모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나?

구역장과 구역담당 평의원은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닌 좀 더 자율적, 창의적 방법으로 자신의 형제회에, 자신의 구역에 맞는 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형제회 구역모임은 이제 변화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마지못한 의무감이나 때우기 식의 모임이 아니라 본당에 도움이 되고 형제회의 성장을 가져오며, 개인에게도 더 큰 영적 성장이 되는 모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3. 구역모임 활성화 방안

1)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구역모임은 삶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가족의 형태여야 한다. 구역 회원들의 각자의 깊은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는 안방같이 편안한 구역모임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2) 구역모임을 다양화한다.

- ① 구역의 특별배려 회원(노령회원)이나 환자를 방문한다.
- ② 구역피정, 성지순례, 구역 소풍, 트래킹 등 야외 장소에서 모든 피조물을 찬미하며 함께 한다.(가능한 노령, 환자 회원을 모실 수 있다.)
- ③ 본당에 필요한 작은 일이나 지역 사도직을 찾아 함께 실천한다.
- ④ 영화, 연극, 전시회, 지자제(之者制) 마을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구역모임을 다양화하며, 우리의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유재하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나누어 간다.

3) 구역의 연중 계획 짜기

가능한 자주, 더욱 정 깊은 구역모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계획을 짠다.

4) 구역모임, 성소계발에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

성소계발(지원자 모집) 계획, 대상자 선정, 실천계획을 세운다.

5) 월 1회 보다는 더욱 자주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형제회는 구역이 밀집되어 있고, 지방형제회에서는 구역의 범위가 넓어 가까운 지역의 회원들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회원들이 한 달에 적어도 두 차례의 모임(월례회, 구역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서로 간에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재속프란치스칸이라는 신원의식을 심화시키는 양성을 하기 위해서이다.

4. 구역모임의 미래 어떠한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친교를 나누고 상호 봉사와 사랑 안에서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소규모의 기초 모임 또는 이른바 ‘생활’공동체인 작은 모임이 교회의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교회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여겨진다.”라고 우리 안의 작은 모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또한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는 미래교회는 기초 공동체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대형화되고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과 창의력으로 살아있는 기초 공동체로 교회가 새롭게 세상 안에 자리 잡을 때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것만이 아닌, 서로간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 존중되고 형제애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즉 상호적인 소통이나 아래(구역원)의 의견이 위(평의회)로의 전달로 익숙하게 연결되도록 학습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구역봉사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점들은?

1) 구역모임의 준비, 할 일들

구역모임은 평화의 사도나 형제회에서 제공하는 구역모임 자료 등을 통해 하느님 말씀과 사부님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서로 본받는 자리가 되도록 이끈다. 구역모임에서는 서기를 두어 일지를 정리하고, 이 일지는 구역장 모임 회의자료로 사용한다.

구역모임에서는 먼저 마음을 나눈다. 크리스천으로서, 프란치스칸으로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마음을 나누는 것만큼 더 큰 친교가 어디 있겠는가? 구역모임은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친교의 음식을 조금씩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구역장들은 회원들이 친교를 위한 간단한 다과나 음식을 준비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가족, 즉 식구라는 개념은 먹는데서 유래하지 않는가?

2) 구역모임의 진행, 시기와 장소와 횟수?

구역모임에서는 매끄러운 운영을 위해 적당히 끊고 적당히 이어주며, 모든 회원들이 서로 가족임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주며, 모임에서 모든 회원이 말씀나누기에 참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국가형제회는 평화의 사도를 통해 구역모임을 돕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사도는 구역 모임의 한 모델이다. 이를 토대로 변형하여 구역모임을 이끈다면 더욱 좋고, 최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누되 회원들이 안방같이 편안한 구역모임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구역모임은 꼭 월 1회여야 하는가? 재속프란치스칸들은 사도직 활동만을 위한

단체가 아니기에 구역모임을 융통성 있게 한다면, 영적 양식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사도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기도모임을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다. 즉 월 1회의 구역모임을 탈피하여 주 1회 모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역장과 구역담당 평의원은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기를 바란다. 일반적으로 형제회 공동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본당에 재속프란치스코 회원은 많은데 활동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존의 단체 일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회 구역모임은 그저 친교 정도로만 그쳐버리고 만다. 형제회와 각 구역의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인 적용은 할 수 없지만 형제회 구역모임은 이제 변화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마지 못한 의무감이나 때우기 식의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회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함께 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활동하는(초기 교회 소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구역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당에 도움이 되고 형제회의 성장을 가져오며, 개인에게도 영적 성장이 되는 모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3) 구역의 적절한 분할 시기(인원)

구역의 적정 인원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원을 그 모범으로 들 수 있겠다. 12명이 주춧돌이 되어 움직이면 친교와 형제애 진작에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한 본당에 여러 개의 구역모임이 존재할 수 있다. 좋다. 한 본당에 여러 개의 구역모임이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본당에도, 형제회에도. 물론 형제회의 형편에 따라 그리고 구역의 상황에 따라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지금의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모임에서 생명이 있고, 성령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하려면 어떤 시도가 필요할까? 오늘 주 1회, 12명이라는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고, 성령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4) 소속감과 정체성 - 구역장의 선임기준과 시기(임기를 포함하여)

구역장은 먼저 자신의 서약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형제회에 대한 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 안의 여러 단체를 섭렵한다고 해서 열심히 회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형제회가 교회 내 여러 단체 중 하나인 회로 여긴다면 그에게서 형제회에 대한 애정이나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교회 생활과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모든 활동을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하는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어렵다는 얘기가. 우리는 프란치스칸 정신으로 복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활동 역시 프란치스칸이라는 의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회원의 정체성이요, 구역장의 정체성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구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의식 있는 회원들과 평의회는 부족할 수 있는 구역장을 도와야 한다. 사부님이 권고에서도 말했듯이 서로 부축해주는 역할은 바람직한 프란치스칸 정신이다. 그렇다면 구역장의 임기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평의회 임기와 같은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구역장 활동을 통해 평의회와 소통하고 인재를 키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장기집권은 다른 사람들을

크지 못하게 한다.

6. 새로운 변화에 쇄신하는 구역모임을 위한 제안

이 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나니 원천적인 질문이 다시 일어난다. 잦은 모임, 정기적인 모임을 위해 구역모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역모임 밖에는 모임이 없는가?

1) 다양성

전 세계적으로 형제회는 다양하다. 최소한의 삶의 원칙과 규정을 주는 것이 회칙과 회헌이라면 형제회는 모두 색깔이 달라야 한다. 우리 삶의 자리는 제각각 다르다. 그러하다면 형제회의 모습에 따라 달라야 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달라야 한다.

구역모임 외에 위원회, 동아리, 기도모임이나 취미 모임 등이 활성화 되어 종횡이 함께 움직이는 형제회 모습을 지니기를 바란다. 형제회는 정기모임과 비정기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원회, 동아리, 기도 모임 등의 횡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형제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자발성

회원이 좋아하고 의미있고, 재미있는 모임으로 만들어가자. 회원들이 의견을 내어 지역적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별로 묶을 수도 있다. 양성, 사도직 등등.

3) 고유한 색깔

지구 평의회는 형제회가 고유한 색깔을 가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획일화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형제회, 구역모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최소한의 원칙 준수

지구나 단위평의회는 구역모임(소모임 등 다른 이름이 좋겠다)의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면 된다. 연대와 일치의 정신이 항상 강조되어야 하고, 평의회와 보고와 규정 준수는 지켜져야 한다.

새로운 모임에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안주하는 것이며 발전적이지 않다. 더더욱 소용돌이 치는 현대에 천편일률적인 모임은 지겹다. 예수님과 프란치스코는 새로운 시도의 대가들이었다.

<구역사례 1>

더디 가도 함께 가지요

진주 프란치스코 형제회 가좌구역

회칙 제 13조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받아들이며 특히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형제애를 나누라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회칙의 소명을 실천해 보려고 요양원이나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행해 보았지만 결과는 항상 공허하고 일회성으로 그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역장이 된 후에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할 곳이 바로 내 가정이며 우리 구역임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과 형제애를 살기 위하여 작지만 온 마음을 기울여 애써 본 경험을 꾸밈없이 소개합니다.

가좌구역의 시작과 특성!

2009년 당시, 진주 프란치스코 형제회 구역은 일곱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저희 가좌구역은 가좌동 성당, 사천성당, 칠암성당에 교적을 두고 있지만 가좌동 성당의 관할구역에 사는 형제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가좌구역 회원은 종신회원 2명, 입회2반 2명, 입회1반 2명, 총 6명이었지만 단위 본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섯 구역과는 달리, 세 성당의 형제자매들로 구성된 특성상 친분은 물론, 소위 안면도 없는 상태라 연락과 만남이 쉽지 않아서 한 번도 구역모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1년 후인 2010년, 오 프란치스코 형제가 유기사약을 하고 새로운 구역장으로 선임되어 구역모임을 하려고 했지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구역모임은 형제회 월례회와 다음 월례회 중간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모임 날짜를 잡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차선택으로 매월 첫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형제회 월례회 앞에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월례회 시작 1시간 30분전인 12시 30분에 월례회 장소인 칠암동 성당에서 구역모임을 시작했다.

약속된 시간에 중단 없는 모임!

주일 본당 교중미사를 봉헌하고, 식사를 하고 구역모임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간혹 본당 행사 등 특별한 일이 있는 날에는 안타깝게도, 식사를 못하고 참석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지인들과 느긋하게 식사하고 모임에 늦게 와서는 미안해하는 모습은커녕, 양치질까지 하고 와서는 시계를 보고 월례회 시간 늦는다고 빨리 구역모임을 끝내라고 화를 내는 형제자매도 있었다. 그렇지만 묵묵히 모임을 이어갔다. 1년 정도 차선책으로 구역모임을 진행해 온 구역장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야겠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차선에서 최선으로~(장소의 변화)

모이는 것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자, 구역장과 뜻을 같이하는 형제자매들이 의무적인 구역모임에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구역모임을 갖기 위해, 날짜와 시간,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

일단, 모임 장소를 회원이 가장 많은 가좌동성당으로 바꾸고, 날짜와 시간은 3주 수요일 저녁7시 30분으로 정했다. 친교 보다는 회의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가능하면 모임의 절반은 야외에서 하기로 했다.

식당에서, 영화 관람으로, 치맥을 하며, 찜질방, 야구장 등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일이 좀 멋쩍은 모임을 함께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으로 초대하는 회원도 차츰 생겨 형제자매의 집에서 한 술밥을 먹으면서 구역모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여전히 반대하며 참석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몇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이 구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협조자(동조자)들과 함께~.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의견을 내 놓으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일단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힘이 쭉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면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했다. 그럴 때 같이 고민하고 힘을 주는 협력자가 가좌구역에는 있었다. 반대하는 한 두 사람 때문에 구역 활성화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과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때로는 차를 마시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쌓인 스트레스도 풀면서 다시 힘을 얻었다. 협조자들 덕분에 함께하는 구역모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우리 구역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가능한 자주 만난다.

형제회 월례회 후나, 특히 구역이 맡는 간식봉사와 사도직 활동으로 하는 형제회 월례회 장소인 대성당 청소 후, 또는 지구 피정을 마친 후, 각자 집으로 바로가지 않고 모임을 가졌다. 모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뒤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그 날의 반성 내지는 평가를 주고받았다. 시간을 내어 따로 만나기는 쉽지 않았기에 한 번 모였을 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지원반, 아니 입회 대상자도 챙긴다.

지원반 회원은 구역모임 참석의무가 없다. 하지만 가좌구역은 지원반부터 모임에 오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제회로 인도하고 싶은 형제자매가 있으면 구역모임 때 초대하여 형제애를 나누는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모임에서 오는 어색함이나 혼자인 듯한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의도였다.

특별배려회원에게 대한 사랑.

가좌구역에는 특별배려회원으로 64년에 종신서원을 하신 형제님이 계신다. 연세는 87세 이시고, 사시는 곳은 진주에서 30분 거리인 사천시다. 연말에 형제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구역에서 준비한 선물을 들고 전 구역원이 형제님을 만나 뵈러 간다. 그날이 12월 구역모임 날이다.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진주 프란치스코 형제회 1호 종신서원자의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들 삶의 등대로 삼는다.

함께, 생활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생활로~

어려움 속에서 곳곳하게 이어온 구역모임 덕에 자연스럽게 소속감과 형제애가 조금씩 생겨나니,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을 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했고, 단체 옷을 입자는 의견이 나왔다. 단체복에 좀 더 의미를 담고자 고민하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항상 회개의 삶과 보속의 삶을 살자는 뜻으로 영화 뽀빠이에 나오는 줄무늬 죄수복으로 결정을 했다. 또한 회칙에 따라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또 서약을 준비하는 형제자매들이 회칙을 조금이라도 알고 실천하기 위해 회칙기도 암송하기를 약속하여 월례회 때 회원들 앞에서 암송하였다. 그 결과는 형제회 안에서 회칙 외우기 바람을 불어 넣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 놓고 당신의 말씀과 그 모든 부르심에 흔연히 응하신 동정 마리아를 본받으며(회칙 제9조)

누구나 섬김을 받고자하는 것,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것, 십자가를 지더라도 좀 작은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 형제가 7년 동안 구역장을 맡아 봉사를 했다. 오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기꺼이 함께 저준 협조자 형제자매가 있어서 가능했다. 2017년, 심신이 많이 지친 형제를 위해 모든 구역원들이 구역장 봉사를 약속했고, 현재까지 봉사한 형제도 포함하여 제비를 뽑아 구역장 순서를 정했다.(7년 동안 봉사했던 형제가 순번이 돌아와 지금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한 사람은 만인을,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가좌구역이 된 것이다.

야이 야~, 내 나이가 어때서~ 구역장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시간은 흐르고 흘러 종신 11명, 입회2반 3명, 입회1반 1명으로 늘어났다. 연령 때는 80대 1명, 70대 2명, 60대 3명, 50대 9명이다. 제비뽑기 1번으로 구역장이 된 자매님은 나이가 70대 이다보니, 형제회에서 문자로 오는 공지사항을 발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문자 전송을 기꺼이 대신해 주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수고로움을 형제적 사랑으로 기꺼이 대신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1년간의 구역장 소임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신발의 먼지를 털고 떠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옷감은 씨줄과 날줄로 이루어진다. 형제회 월례회가 씨줄이라면 구역 모임은 날줄이다. 튼튼한 씨줄과 튼튼한 날줄이 잘 짜여 형제회라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옷감으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한 회원이 종신서원이라는 결과물을 얻기까지 짧게는 4년의 기간이 걸린다. 혼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같이한다는 생각과 인식을 심어주면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잘 보내고, 종신 서원이라는 결과를, 그리고 구역모임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구역장으로서 봉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바닷물이 3.5%의 염분으로 짠맛이 유지되듯, 구역장과 함께 봉사를 다짐하는 몇몇 형제자매만 있으면 구역은 활성화 되리라 생각한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느님께 기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한다. 구역모임 덕택으로 종신 서원까지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란!

<구역사례 2>

다시 만났어요

전주지구 중앙형제회

김제 보나베틀라 준비형제회 설립과정

평의회 구성의 어려움과 형제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게 된 김제형제회를 지구 영보님과 지구 평의원의 방문과 노력에도 결국 2013년에 폐쇄되고 말았다. 폐쇄된 형제회의 회원들을 지구의 요청으로 중앙형제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회원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거리가 멀고 교통상의 불편으로 연로하신 대부분의 회원들이 월례회 참석이 어려워 특별배려회원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월례회에 참석 할 수 있는 분은 7-8명 정도였다. 그리고 김제는 구역모

임 형식의 월 모임을 갖게 했다. 구역장과 약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하게 하면서 저희 평의회는 매년 1회 구역을 방문하여 돌보아드리고 그곳 회원 전체와 점심식사도 대접하며 형제애를 나눴고 환자회원도 년1회 방문하여 기도와 함께 작은 선물도 건네며 위로해 드렸다. 회원이 선종하시면 또 거리가 멀긴 하지만 꼭 참석하여 연도도 해 드리고 장례미사도 참석하려 노력하였다. 또 우리 평의회에서는 유기서약반으로 오신 회원을 종신서약 시킨 후 평의원으로 선출시켜 3년 동안 평의회 및 월례회 운영과 전반적인 형제회 일을 경험하게 했으며 구역장님과 회원들은 열심히 지원자를 모집하여 회원이 매년 늘어가게 되고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 다시 설립하기를 원하게 되어 저희 평의회에서도 이제는 형제회로 준비시켜 나가도 되겠다 싶어 김제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고 설립요청을 지구에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보나벤투라 준비형제회로 이름을 짓고 김제 구역모임에 지구평의원과 우리 평의원이 참석하여 평의원 9분을 임명하고 지난 4월 17일에 첫 평의회를 열었다.

지구 평의원과 우리 평의원이 참관을 했고 첫 월례회 4월 27일에도 참관했다.

다만 유기서약반 3명, 입회2반 5명, 입회1반 4명, 지원반 7명은 중앙형제회에서 양성을 담당하기로 했다. 종신서약반 13명, 특별배려회원 7명, 총 3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준비형제회의 발전을 위해 지구에서, 모형제회인 중앙형제회에서 각 백만원씩의 지원금을 전달해 드렸다. 지난 중앙형제회 연례피정에 준비 형제회와 함께하며 모두들 기뻐하였다.

준비형제회의 발전을 비는 마음 가득 하였다.

참 고 서 식

[서식1]

구역모임출석부

20 년도

 형제회

 구역

번호	성명(세례명)	연락처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범례 : 참석자 ○, 불참자 ×

[서식 2]

구역모임일지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시작기도	성가
영적독서 :	
지난 구역모임일지 낭독 :	
출결사항 : 총 명 , 출석 명, 결석 명	
말씀 및 생활나누기:	
활동나누기 :	
공지사항 :	
토의내용 :	
참고사항 1.영적독서의 선정 : 회칙과 회헌과 프란치스칸 서적에서 선정한다. 2.공지사항 : 상급형제회 결정사항, 단위형제회 결정 및 전달사항,회원 변동사항(전입, 전출등) 3.활동나누기 : 봉사 횟수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나눔 등 4.구역모임일지는 구역장 회의 때 구역담당이 확인하고 각 구역에서 보관 정리한다.	
기록자 : 구역장 서명: 구역담당 서명 :	

※ 이 양식은 형제회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서식 3]

구역장 회의록

일 시 : 년 월 일 시

장 소 :

시작기도	성가
영적독서 :	
지난 회의록 낭독 :	
출결사항 : 총 명 , 출석 명, 결석 명	
공지사항 :	
각 구역모임 보고 :	
토의 및 건의 사항 :	
참고사항 1.영적독서의 선정 : 회칙과 회헌과 프란치스칸 서적에서 선정한다. 2.각 구역모임 보고 : 구역모임 실시 유무와 주요 사안을 간략하게 보고 3.구역장 회의록은 평의회에 보고하고 봉사자에게 서명 받아 보관 정리한다.	
구역담당 서명:	봉사자 서명 :

※ 이 양식은 형제회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서식 4]

특별배려 회원관리 카드

[형제회 구역]

성명(세례명)		회원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비상연락처	
사 유		결 정 일		해지예정일	
일자(방문일)	관리내역(현재 상태)		관리활동 참가자		비고

※ 이 양식은 형제회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참석자 명단>

2023. 전국 지구 단위 구역담당 연수 참석자 명단

일시: 2023년 05월 27-30일

장소: 산청 성심원 교육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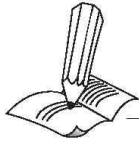
No.	지구	이름, 세례명	직책	입금	남/여	방배치
1	중서울지구-4명	이근용 베니뇨	부봉사자		남1	207
2	중서울 보나벤투라	박옥분 로즈마리			여1	201
3	중서울 보나돈나	김야물 안나			여2	201
4	중서울 루피노	김도순 미카엘라			여3	201
불참	중서울프란, 루게치오, 비오					
5	동서울지구-4명	강애경 안나			여4	202
6	동서울 실베스텔	양동순 요셉			남2	207
7	동서울 글라라	정영화 아녜스	부봉/구역		여5	202
8	동서울 비안네	김임숙 소화테레사			여6	202
불참	동서울 맛세오, 엘리사벳, 요셉					
9	서서울지구-4명	황정우 요셉			남3	207
10	서서울안토니오	정수정 수산나			여7	203
11	서서울레오	곽선영 켄마			여8	203
12	서서울야고바	이근숙 마리아			여9	203
불참	서울루도비코, 토마스모어, 콜베, 아씨시					
13	의정부-2명 의정부 라베르나	허일순 올리아			여10	204

14	의정부 프란치스코	김정혜 소피아	구역대리		여11	204
불 참	의정부지구, 의정부다미아노, 예지디오, 마르가르타, 글라라, 천사들, 루케					
15	인천지구-9명	김명자 카타리나			여12	213
16	인천 프란치스코	오봉자 미카엘라			여13	213
17	인천 안토니오	권문자 프란치스카			여14	213
18	인천 루케치오	김혜경 파우스티나			여15	213
19	인천 레오	조숙자 크리스티나			여16	213
20	인천 보나벤투라	심문숙 켄마			여17	213
21	인천 마리아프란	장소영 올리아나			여18	205
22	인천 엘리사벳	성혜경 마리아			여19	205
23	인천 콜베	임화순 바울리나			여20	205
불 참	인천다미아노, 글라라					
24	경기지구-5명	김은미 마리아			여21	212
25	경기 안양	송숙의 모니카			여22	212
26	경기 과천레오	김경순 루치아			여23	212
27	경기 용인프란	이한주 세실리아			여24	212
28	경기 수원안토	김환택 스테파노	봉사자		남4	106
불 참	경기평택, 수원프란, 성남, 안성, 광명, 분당, 양평, 안산, 판교, 수지클라라					
29	대전지구-5명	한영희 아녜스			여25	211
30	대전 루도비코	최영아 마르타			여26	211
31	대전 루케치오	김현숙 루이자	구역대리		여27	211
32	대전 글라라	박미순 글라라			여28	211

33	대전 엘리사벳	유연숙 베로니카			여29	211
불 참	대전당진, 금산, 공주, 천안, 프란치스코, 서산, 서천비오					
34	청주지구-3명	이명순 마리아고레띠			여30	212
35	청주 안나	우문선 수산나			여31	212
36	청주 엘리사벳	김형기 가브리엘	구역대리		남5	106
불 참	청주진천, 충주, 루도비코, 제천, 괴산, 원주					
37	전주지구-3명 전주 창인	박종세 베드로	봉사자		남6	106
38	전주 주현	이둘레 비비안나			여32	206
39	전주 김제보나벤	조복순 마리아			여33	206
불 참	전주지구, 전동, 노송, 중앙, 삼례, 다가, 서학, 남원, 군산					
40	광주지구-9명	조명순 글라라	부봉사자		여34	108
41	광주 파스칼	김희숙 켈투르다	구역대리		여35	108
42	광주 토마스모어	김상현 글라라	부봉사자		여36	108
43	광주 글라라	장양익 문우요한	정평창보		남7	103
44	광주 여수	길경옥 비아			여37	109
45	광주 목포	임순희 아녜스			여38	109
46	광주 루케치오	김금란 도미니카			여39	109
47	광주 엘리사벳	박경이 스콜라스티카	부봉/구역		여40	109
48	광주 루피노	강점례 아녜스	부봉사자		여41	109
불 참	광주보나벤투라, 나주, 순천, 레오, 루도비코, 안토니오, 요한마리아비안네					
49	경남지구-9명	손명옥 로사	부봉사자		여42	102

50	경남 산청	강귀희 이레네	부봉사자		여43	102
51	경남 진주프란	김경희 엘리사벳			여44	102
52	경남 진해베드로	조경이 로사리아			여45	101
53	경남 거창	함운숙 안젤라			여46	101
54	경남 고성	이순연 글라라	구역대리		여47	101
55	경남 진주글라라	정명순 노엘라	부봉/구역		여48	107
56	경남 거제	김정순 아네스	정평/구역		여49	107
57	경남 마산보나벤	설보영 요셉피나	부봉사자		여50	107
불 참	경남마산요셉, 창원, 진주레오					
58	대구지구-13명	서철석 토마스아퀴나스	부봉사자		남8	105
59	대구 엘리사벳	김경미 레지나			여51	110
60	대구 구미베네딕도	곽은경 레지나	양성		여52	110
61	대구 구미베네딕도	박정애 안젤라	구역대리		여53	110
62	대구 포항프란	정옥분 아드리아나			여54	110
63	대구 레오	노신희 엘리사벳	양성		여55	110
64	대구 루케치오	정덕선 글라라			여56	110
65	대구 루도비코	김현정 마르타	회계		여57	111
66	대구 삼덕프란	윤희정 마리아	구역대리		여58	111
67	대구 월성 프란	권정혜 가브리엘라			여59	111
68	대구 성김대건	이병준 그레고리오			남9	105
69	대구 죽도글라라	정정숙 루치아			여6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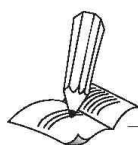
70	대구 경산프란	전윤자 요안나			여61	111
불참	대구안토니오, 프란치스코, 경주글라라, 안동					
71	부산지구-5명	이미경 모니카	부봉사자		여62	210
72	부산 기장꽃베	김애숙 데오필라			여63	210
73	부산 서면	이연순 비비안나			여64	210
74	부산 동래글라라	김영애 루시아			여65	210
75	부산 밀양	신말선 글라라			여66	210
불참	봉래, 대연안토, 동향, 만덕, 안락, 야음, 하단, 물운대, 언양, 우동, 김해연지, 덕계, 하단					
76	제주지구-2명	김순신 모니카	부봉사자		여67	204
77	제주 글라라	이석진 라파엘	서기		남10	103
불참	제주루케치오, 보나벤투라, 레오, 안토니오					
불참	강원지구, 단위 형제회 불참					
78	국가평의원-7명	홍성군 바오로	봉사자		남11	208
79		강인택 호영베드로	부봉사자		남12	208
80		박은이 M 도미니카	서기		여68	209
81		하현정 크리스티나	회계		여69	209
82		전민호 비아	국제		여70	209
83		최요안 요한	선교		남13	
84		이청조 요한보스코	정평		남14	208
85		최문기 마티아	영보		사제	28일만
86	직원	오미라 소피아	사무장		여71	209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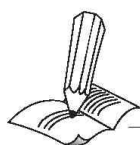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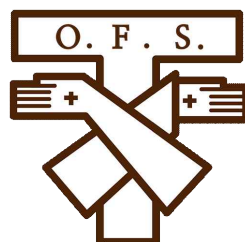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MEMO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 국가형제회



재속프란치스코회 한국국가형제회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01호

02-752-9839 / www.ofskorea.org

2023
년
국가형제회
전국
지구
단위
구역담당
자료집